

은 담배 완제품 재료의 실제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 이 사건 로열티 역시 원고의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해외로 수출한 담배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 중 해외에 수출한 담배 완제품에 사용된 물품에 관해서만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권리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성 요건 인정 여부는 직접 상관이 없다. 권리사용료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인 관련성은 권리사용료 지급대상 권리가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권리사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그리고 관세법령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지급이 거래조건이 된 권리사용료를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③ 설령 이 사건 라이선서들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재 제조·거래에 관련 단계에서 받지 않고 최종 매출 단계에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C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된 국내 매출액에 담배 완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공급하